

# 우원식 의장 “한덕수,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 임명 합당”

### 언론에 입장문...“국정 안정 시급한 상황 불필요한 논란 안돼” “국회 몫 3인 임명의 실질적 권한은 국회에 있다” 강조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임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국정 안정이 시급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3인씩 선출해 구성하는 9인의 헌법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은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을 받을 뿐 실질적 권한은 국회에 있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선출 및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의 경우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권한에 불과하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게 가능하다고 해석했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또 “헌법재판소 역시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국회의장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취지에 맞춰 국정 혼란을 수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현재 한 권한대행이 공식인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권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태이므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공식인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 주체는 국회이고, 한 권한대행은 임명장 결재 절차만 밟는 수동적 역할을 하는 만큼 이들이 반드시 임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의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특위 위원장은 애초 국민의힘 정적식 의원이 맡기로 했으나,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의 여당이 불참해 야당 단독으로 위원장을 교체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59·18기)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우원식 의장, 백골부대 방문 우원식 국회의장이 18일 강원 철원군 육군 제3보병사단에서 정재열 3사단장에게 북측 지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국힘 김상욱 “윤석열은 보수 아닌 극우”

### “비상계엄, 군부 독재 연상...상대 인정 않는게 극우적 가치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찬성과 관련 1인 시위를 했던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18일 “윤석열은 보수가 아니라 극우주의자다. 윤석열은 정통 보수인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나와 “군부 독재를 연상시키는 비상계엄, 민주주의를 반대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힘으로 누르겠다는 생각,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가치관 자체가 극우적 가치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조선·울산 남구간)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여당 의원 중 한 명으로, 지난 14일 두 번째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에 탄핵 찬성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김 의원은 “두 번째 대통령 담화는 ‘극우여 붕괴 해라. 아무것도 모르겠다. 나를 지켜라 극우여’ 오히려 이런 위협으로 들렸다”라고도 말했다.

그는 “이 사람이 어쩌다 보수의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극우 사상에 심취해 자기 생각과 맞는 극우주의자들 옆에 끼고 극우가 마치 보수인 양 만들어 왔다”며 “이 때문에 국민의힘이라는 보수당 안에 극우라는 암이 자리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부터 먼저 고쳐야 한다”며 “보수의 가치를 중심으로 재건되고, 극우라는 암 덩어리를 빨리 치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명백한 내

란”이라며 “헌정질서 문란을 목적으로 무장 군인을 국회 내에 투입했다. 대법원 판례나 기타 모든 입법례를 보더라도 내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당시 어려울 때 정확한 판단을 해 구한 분이다.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혀 끌어내림 당했다”면서 “보수의 배신자는 윤석열”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비상대책위원장 인선과 관련해선 “대통령과 가까웠던 사람, 대통령과 성향을 공유했던 사람, 이번 비상계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절대 리더가 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승민 전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상황과 관련해 “당에서 반성문 한 장 안 나오고, 자기들끼리 권력 투쟁을 하고 있다”며 “당이 완전히 소멸되는 코스로 가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탄핵하면 이재명한테 정권을 갖다 바친다”, “탄핵하면 망한다”는 생각 자체가 너무 잘못된 것”이라며 “잘못했으니 탄핵을 당하는 것인데 8년 전 탄핵하다 똑똑 망했으니 이번에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단세포적인 논리가 어디 있느냐”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탄핵에 반대했던 중진 중에 비대위원장을 앉히면, 당이 속된 말로 끌려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 이재명 “민생 추경 필요”...권성동 “장관 탄핵 철회”

### 권 국힘 대표 대행, 민주당 예방...정국 수습 방안 등 논의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만나 비상계엄 및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정국 수습 방안 등을 논의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이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서로의 지나친 경쟁을 좀 자제하고 차분하게 민생과 안보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면 이 혼란 정국을 잘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총 14건의 탄핵소추안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라며 “대통령 탄핵소추안까지 현재가 언제 23건의 탄핵소추안을 다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3차례의 대통령 탄핵소추를 거론하며 “대통령 중심제가 과연 우리의 현실과 잘 맞는지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올 오어 낫싱’ (All or Nothing), 전부 아니면 전무 게임인 대통령제를 좀 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고 상생과 협력을 할 수 있는 제도로의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서로 존재를 인정하고 적정하게 양보하고 타협해서 그야말로 일정한 합의에 이르게 하는 게 정치 본연의 역할”이라며 “현재는 좀 안타깝게도 정치가 아니라 전쟁이 돼버린 상황이다. 정치가 복원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근 자신이 제안한 국정안정협

의체와 관련해 “(권 권한대행이) 약간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다”며 “필요한 부분까지는 저희는 다 양보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교섭단체로서는 좀 실질적인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지금까지 잠재성장률에 맞춰서, 너무 형식적인 균형·건전재정 얘기에 매몰돼서 사실은 정부의 경제 부문에 대한 책임이 너무 미약했다는 생각”이라며 “조속하게 민생 안정을 위한 민생 추경을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정이 매우 불안하다”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헌정 질서의 신속한 복귀”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권 권한대행을 맞이하며 “선배님”이라고 불러 눈길을 끌었다. 중앙대 법학과 동문으로 사법고시를 함께 준비한 인연이 있다. /연합뉴스

## 이재명 “조국 빈자리 커...빨리 다시 보게 되길”

### 민주-조국혁신당 대표 만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8일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수감에 “빈자리가 크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을 만난 자리에서 “지금 현장에는 없지만 조국혁신당에는 언제나 ‘조국’이 있지 않냐”면

서 “쇄빙선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한 결과, 혼란한 와중이긴 하지만 문제해결의 단초가 열린 것 같다. 잘 협력해서 국민이 나라 주인으로 인정받는 민주적인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권한대행은 “조 대표도 늘 이 대표 말씀을 했고, 앞으로도 (이 대표가) 많이 도와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화답했다. 이 대표는 이

어진 비공개 면담에서 “조 전 대표를 이룬 시일 안에 빨리 다시 보게 되길 희망한다”고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검찰개혁도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조 전 대표가 별문지회의의 치욕을 경험한 것은 검찰의 연성 쿠데타로 시작됐고, 그 쿠데타의 최종점이 계엄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적 죽이기에 검찰 권력이 온통 활용되는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